

“은혜를 받은 자여”

(누가복음 1:26-35)

오늘은 우리 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드리는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예레미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오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이신 그리스도 영으로 그들을 믿고 믿어오는 모든 자들에게도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구원받은 천사들, 영으로로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오심과 같은 관계를 맺는 자인만큼 축복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할 것만 소식을 전하였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에게 오늘 제복처럼 은혜를 받은 자여!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성탄의 놀라운 주인공이요, 그리고 큰 은혜를 받은 자여!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해 일단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 하면 위박 루마 카톨릭에서 이 마리아라는 존재를 신격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신교 담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무성종배 치열이기에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인 해석이 무척이지 마리아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마리아나 우리 모두는 똑같은 하나님 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단지 처지, 양육 환경이라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여! 이는 이 축복의 말씀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탄의 소식을 믿어 드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첫 번째는 태양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찬 하느님 의 성탄의 시기에 이 땅에 반드시 구원자로 오셨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물음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반드시 두 군대를 택하시고 취하의 몸을 빌려서 주님을 어린 강령체로 오시게 했어야 했습니다. 즉 이차(가장 14살 말년의 성체를 이루실 그 두 군가를 택하시고 하느님은 그들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노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너희가 의태하여 이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들을 임하는 영이여, 하느님(키리시마)" 이 말 씬이 성취되도록 태어난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을 가진 광범한 마리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세대들(generator)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마리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성의한 오심을 낳을 것이요, 그러나 성령으로 인하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시도가 이 땅에 오심을 낳는 것이요, 그분은 오시기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리라 오시고 창세년부터 이 날까지 태초의 이 은혜가 일어나 구하고 갚지 않은 자들일까요? 이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을 올려 드리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로 은혜를 받은 것은 성령으로 임하는 삶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소명을 믿어 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임하여 오도록 위해 하느님이 마리아를 택한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사명은 바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존재 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친히(가)에게 임할 것을 할 수가 있을(가)를 할(가)는 것이요, 마리아는 오직 하느님만이 성령을 통해서만 그 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 영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기둥의 열을 오직 성령을 통해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믿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알 지 못하는 영혼들에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같은 성령 이 하지는 것이 저 사람이 가능케 하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서 임하게 하 세이 가능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가 한 해 동안 표어문과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임하게 하 훈을 통해 성령의 임하게 하 이 소명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오는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통해 더 단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성탄의 의미가 귀한 열매로 이어져야 할 축복하는 것입니다. 복되고 의미 있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 영혼을 품어 열매 맺는 생명의 공동체”

2024년 포어

나희 생가에는 어떤하나지만 어떤 사람이 양 배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선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았느냐(마태복음 18:12)

일반전회	교회학교
세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시
드림 워십	주일 오전 8시
글로벌 워십	주일 오전 10시
블레싱 워십	주일 오후 12시
청년예배	주일 오후 12시
영아예배	주일 오전 10시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시
수요종교기도회	수요일 저녁 8시
	세너리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유 아 부 최수진 지도사 (917)526-1344	1 선 교 회 김성준 목사 (617)949-1118
유 치 부	2 선 교 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중 고 등 부 최주안 지도사 (646)662-0691	3 선 교 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중 고 등 부 김성준 지도사 (917)797-4237	4 선 교 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리 브 미 선 박영애 지도사 (718)737-1643	5,6 선 교 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청 년 부 김성준 목사 (617)949-1118	히 스페 닉 이호성 목사 (646)549-6043
영 어 회 중 울 김 목사 (201)679-2924	네 팔 다넬 바트셀 목사 (201)927-0220
행 정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몽 골 투글들 목사 (646)467-2675
양 육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다민족지역 양영란 지도사 (917)533-9511
새 기 족 부 최순성 목사(재) 박수진 지도사(재)	시 니 어 서 역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신 범 부 박수진 지도사 (646)642-9331	

단체 기도교(TV)라일워너 케이블 채널(487)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반방송)
토요일 오전 11시(재방송)

2024년 12월 29일	3부 예배 12:00pm
1부 예배 8:00am 2부 예배 10:00am	3부 예배 12:00pm
드림 워십	블레싱 워십
인도: 최순성 목사	인도: 김성준 목사

*경배와 찬양 Worship Song	두나미스 찬양팀	신앙교백	사도신경
*기원 Invocation	인도자	경배와 찬양 블레싱 찬양팀	사도신경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제144편 "시편(Psalms) 100편"	기도	손영길 집사
*신앙교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공동체 소식 영성	공동체 소식 영성
찬송 Hymn	새B(장(통 46)) "기쁜까지 지내라" * Gods Great Gifts Has Brought Us	성경발독	갈 5:22-23 히 12:14
찬송 Anthem	백성우 찬로 (Elder Sing Woo Park)	*봉헌	"나 무앗과도 주님들"
찬송 Scripture	대살로나기전서(Missionary) 5:18	성고	"성령의 열매: 화평"
*봉헌 Offering	새213장(통 348) "나의 생명을 드린다"(1,4절) "Take My Life and Let It Be"	찬양	"당신은 영광의 향"
찬송 Hymn	클로리아 찬양대 "응축해 내영혼" "How With You End the Year?"	찬양	"당신은 영광의 향"
*축도 Benediction	*찬송 Anthem	찬송	김성준 목사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s	김학진 목사		

(*표는 가능하면 일어서서 / Stand if able)